

사탄의 전략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5
사탄은 ... (1)	6
사탄은 ... (2)	7
사탄은 ... (3)	7
사탄은 ... (4)	8
사탄은 ... (5)	8
사탄의 목표	9
사탄은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9
정체성의 전쟁?	10
사탄의 유혹 (1)	11
사탄의 유혹 (2)	11
사탄의 유혹 (3)	13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13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13
사탄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3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꺾는 사탄?	14
아첨하는 사탄	14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탄의 지름길들	15
왜 사탄은 우리를 막을까요?	15
우리로 하여금 에워싸여 있게 만드는 사탄?	16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에워싸고 감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16
감정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사탄	17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17
사탄의 역사?	18
사탄의 역사 vs. 주님의 역사?	18
하나님의 시험(Test)과 사탄의 시험(Temptation)	19
“하나님은 왜 사탄을 통해 옴을 시험하셨나요?”	22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25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26
무엇이 다릅니까?	28
무서운 사탄의 전략	29
사탄의 주된 전략	29
사탄의 전략 (1)	30
사탄의 전략 (2)	33
사탄의 전략 (3)	37
사탄의 전략 (4)	39
사탄의 전략 (5)	47
사탄의 전략 (6)	54
사탄의 전략 (7)	66
사탄의 전략 (8)	68
사탄의 전략 (9)	71
사탄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77
바로 알아야	83
빼앗깁니다.	83
나 자신과의 싸움	83
마음과 육신이 따로	84
미움의 씨	84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85
하와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	86
부부를 공격하는 사탄	90
부부 관계 속에서의 사탄의 역사 (1)	91
부부 관계 속에서의 사탄의 역사 (2)	91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92
만일 사탄의 유혹에 내 배우자가 빠졌다면 ...?	93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결혼을 공격하도록 틈을 보이면 아니 됩니다.	93
음행의 유혹	94
성적 유혹	96
간음의 죄를 짓는 원인은?	97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 ㅠ	100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	101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102

한 순교자의 아내의 일기	104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106
회개기도 및 행동	111
신부된 교회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합니다.	114
지금 우리의 귀는 ...	115
내 마음이 흔들릴 때	116
죄가 우리 문에 얹드려 있습니다.	120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124
성령의 검이 무딜 때	133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	137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39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148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149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150
누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가?	155
자신을 스스로 팔지 마세요!	157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160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164
결론	170

서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꺾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9). 사탄은 본래부터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에는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미가엘 천사처럼).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을 품었습니다(사14:12-14). 그러므로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난 범죄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유1:6).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가장 간교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뱀으로 하여금 생령이 된 아담(창2:6-7)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16-17절)(김창세).

저는 어제 수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 김창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요약하다가 제가 여태까지 목상한 “사탄의 전략”에 대한 글들인 ‘사탄의 전략 (1)~(9)’까지 교회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제가 여태까지 사탄에 관하여 목상한 모든 글들을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 사역지체들 등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목요일 밤까지 이렇게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 아래 한 권의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저의 이 부족한 사탄에 관한 책이 우리 모두에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조금이나마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20년 8월 20일, 승리의 깃발을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꽂길 기원하면서)

사탄은 ... (1)

사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눅 8:12).

사탄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13절).

사탄은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14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인내로 결실케 하십니다(15절).

사탄은 ... (2)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에 부지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 (3)

사탄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16:23).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행 5:1-3).

사탄은 ... (4)

사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무척이나 크게 보이게 만들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꺼야'라고 속삭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주님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 (5)

사탄은

역경과 곤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위축케 만들고

마음에 절망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사탄의 목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생을 통해 우리 안에 넣으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만든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것이다. 죄의 성향을 통해 사탄이 이루려는 모든 목표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죄의 철학"에서]

사탄은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몸을 공격한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당신의 마음을 공격한다. 그리고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록 교만을 사용하여 당신의 의지를 공격한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정체성의 전쟁?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고,

맞바꾸고 있으며(롬1:26-27)

또한 혼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혼동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을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재현해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님을 거슬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정체성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사탄의 유혹 (1)

구속자(Redeemer)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서(눅 4:1-13)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신 8:3; 6:13; 6:16)
그 3가지 유혹들을 뿌리치셨습니다(눅 4:3, 7, 9-11).
그러자 사탄은 "얼마 동안"("until an opportune time") 떠나 있다가(13절)
사역을 끝내(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다시 3번 '스스로 구원하라'(그 목적은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고
유혹했습니다(23:35, 37, 39).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C. D. "Jimmy" AGAN III의 "The IMITATION of CHRIST in the GOSPEL of LUKE"을
읽으면서)

사탄의 유혹 (2)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Iain M. Duguid의 "Daniel" 책을 읽으면서)

사탄의 유혹 (3)

첫째로, 사탄의 유혹은 “소동”입니다(행21:30).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속에서 바울을 붙잡고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피므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총동원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켜 요란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사탄의 유혹은 “소문”입니다(31절).

우리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에게까지 들리므로 말미암아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죄사슬로 결박하라 명하”였습니다. 사탄은 악성루머를 퍼트립니다.

셋째로, 사탄의 유혹은 “포행”입니다(35절).

바울이 인솔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가고 있었을 때 군인들은 우리들의 폭력적인 조짐을 포착하고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35절).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언행으로 폭행을 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 되지 않고 거짓되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히게 만들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고후 11:3).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탄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한다.

사탄은 당신이 회개가 아닌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기만을 원한다.

사탄은 계속해서 당신을 고발하여

당신의 관심이 오직 당신 자신과 그 죄에만 집중하게 한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사탄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과도하게 생각하도록 하든지 너무 형편없이 생각하도록 하든지, 우리가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Charles H. Spurgeon, "성령님의 내주와 교회의 영광"]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꺾는 사탄?

사탄은 우리를 꺾되
우리의 형제(자매)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품의 아내(남편)나
우리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 13:1-5).

아침하는 사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사탄은 마치 개가 꼬리를 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여
편한 길로 가도록 아침합니다(박윤선)
(살전 3:3).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탄의 지름길들

사탄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보여주는 지름길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리가 그 길들을 선택하여 걸을 때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택한 그 지름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막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습니다.
(살전 2:17).
그러나 사탄이 바울을 막았습니다(18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1:6)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2:14)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눅 8:12-14).

우리로 하여금 에워싸여 있게 만드는 사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에워싸여 있"게 만듭니다(대하 32:10).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그 에워싸여 있을 때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은 말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에워싸임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가리켜 주님의 종이 우리를 "꺾어"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11절).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의 종에게
"속지 말라 꺾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고 말합니다(15절).
사탄은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에워싸여 있는 힘든 위기 상황에서
"능히" 주님도 못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14, 15절; 참고: 17절).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에워싸고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에워싸는 것입니다(삼상 23:8; 24:26).
사탄은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23:7; 참고: 출 14:3).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창 39:20)
베드로(행 12:4, 5)와 바울과 실라도 깊은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16:23, 24).
비록 사탄은 우리를 갇히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갇힌바 된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사탄

'오늘 사탄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는 감정을 우리 삶에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며,
특정 감정이 있거나 없는 것에 대해
영똥한 죄책감을 대거 유발시킨다.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감정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감정을 우리의 행동이나 성품 변화의 기초로
삼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 기초는
진리에 대한 통찰과 이해와 확신의 몫인데 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마음의 혁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는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고후 2:5-11)

사탄의 역사?

사탄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머리에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Iain M. Duguid의 "EZEKIEL" 주석을 읽으면서)

사탄의 역사 vs. 주님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며,
시련을 통하여 배반하게 만들며,
세상의 영력과 재물과 향락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여서
인내로 결실케 하고 계십니다(눅 8:12-15).

하나님의 시험(Test)과 사탄의 시험(Temptation)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야고보서 1장 12-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한 좋은 예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창22:1). 그 시험은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 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2절).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17-18절).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약1:12).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12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13절)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사탄은 우리의 마음(mind)을 비틀어 놓습니다(twist). 마치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 것처럼(미3:9)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직한

마음을 굽게 합니다. 굽게 하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부러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유혹을 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약1:13) 사탄은 그 진리를 굽게 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참 무섭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사탄의 유혹은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사탄은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틀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 놓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신1:27).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실 수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에 말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지금 사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혼들을 지옥을 가게 만들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음).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게 만들므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굽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구부러뜨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그 거짓은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시련)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옴기에 나오는 옴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옴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옴1:22). 오히려 우리는 옴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23:10)는 믿음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옴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42:5).

“하나님은 왜 사탄을 통해 욘을 시험하셨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욘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욘기 1장 9-12절).

“하나님은 왜 사탄을 통해 욘을 시험하셨나요?” 어느 형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 형제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짐작해보시면 안될까요?” 그 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될 것까지야 없을 수 있겠으나 짐작하기를 거부(거절)함.” 제가 이렇게 그 형제에게 답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통해 욘을 시험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욘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에는(욘1:11)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그 주권적인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롬12:2). 비록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알 수도 없겠지만) 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기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욱을 시험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욱이 당하고 있었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욱을 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욱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2:3). 즉,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욱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욱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욱을 쳤어도 욱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3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이 입증되었습니다(1:8; 2:3). 그리고 사탄의 말이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습니다(1:9-11, 2:5). 사탄의 거짓말은 주님께서 욱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또한 욱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1:10) 욱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8절). 그리고 주님께서 욱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욱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욱한다는 말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11절). 또한 사탄의 거짓말은 욱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욱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욱한다는 말이었습니다(2:5). 그 사탄의 거짓말에 욱의 아내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남편인 욱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족으라”(9절). 사탄의 목적은 욱으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욱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욱의 아내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욱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욱의 아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욱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10절). 그리고 욱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10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1:22).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20-21절).

저는 그 형제가 왜 저에게 “하나님은 왜 사탄을 통해 고통을 시험하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는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통 속에서 충분히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왜…?”(Why?)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Who?)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질병으로 죽어갈 때 “왜?”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보아도 그 대답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라는 질문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Who is my God?”(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시사 오히려 주영이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는 “어떻게?”(How?)라는 질문도 던져 보았고(어떻게 아기가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지 의학적으로도 질문을 던져보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What)이신가 라는 질문도 수 없이 던져 보았지만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면 던질수록 낙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기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어가는 아거나 저나 아내의 생각, 감정,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모든 일(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므로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굉장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때부터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내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저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케 하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케 하시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게 하십니다(롬8:28).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를 해하려 하였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50:20)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시34:8).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을
다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질의 복인
우리의 모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욘 1:10-12)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일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창22:1-2)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고 하신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고 하신 것이다 (신8: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였고(창22:11-12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절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다(첫째 아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목적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

무엇이 다릅니까?

사탄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행 16:24).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욘 2:3, 현대인의 성경).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하는 요나로 하여금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케 만드시사(1, 2절)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는 것인

반면에(9절, 현대인의 성경),

사탄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 16:17,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도 주관하셔서

한방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를(25절)

깊은 옥에서(24절)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26절)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간수(27절)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사

다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31-34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먼저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부각시킨 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작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크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낙심케 하며 좌절케 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은 이 모든 미혹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면 어떠한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도할 텐데 사탄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큰일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작게 보게 만들고 또한 그는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며 절망하게까지 만듭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

"가능한 한 거짓을 많이 퍼뜨려 진리를 부인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전략이다"(존 맥아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비복음적이며 비진리인 거짓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란 시대의 흐름 아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동하고 있으며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1)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출애굽기 14장 3절).

이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목표가 없이 방황하며 살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코너에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인 목적이 없이 방황하며 살게 하는 것은 본문을 영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땅에서 아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영어성경 NASB를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They are wondering aimlessly in the land." 이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이 바로의 생각을 모세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들... 왜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왜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궁금한 것 입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우리의 구원이 방법이 라면 그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한 예로 들고 싶습니다: "...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돌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애굽을 섬기겠다고 뒤돌아 본 것입니다. 마땅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경배하고 또한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섬기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생명을 좀 더 부지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영성보다 도시인 애굽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갈팡질팡하니 바로의 생각대로 그들은 목적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없는 방향의 삶은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생활의 향수병에 걸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보다 혼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면으로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best seller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예배의 목적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사 주시는 삶의 목적에 확신이 없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로”와 같은 사단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혼동 상태에서 방황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우리를 광야에서 코너(corner)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권투를 보면 코너로 몰아세워서 상대방 선수를 쓰러트리려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세워 쓰러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홍해, 좌우에는 사막,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뒤를 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이 막혀 도망갈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14:7) 거느리고 장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14:10)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14:11).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 당면한 상황의 지배를 받아 다시 과거를 돌아보며 섬김의 대상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갇힌 상황처럼 아무리 둘러 보아도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서남북을 아무리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좌절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며 사탄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지요?

이러한 사탄의 두 가지 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고 또한 광야에 갇힌바 된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를 들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는 명령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바로의 군대를 비교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인데 모세의 단순한 순종으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확신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참된 예배의 삶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2)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에스라 4장 4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스4:1)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1절)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4절). 어떻게 성전 재건축을 방해하였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습니다(4절).

다시 말하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제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여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빼놓아진 자아관을 심어주므로 제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빼놓아진 자아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자신을 빼놓아지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아지게 바라보게 하고 듣게 만들므로 제 자신 또한 빼놓아지게 바라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는 제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망하며 절망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제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영을 저회 하였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대적들은 “왕의 모사들(7:14, 28)”이나 혹은 “왕의 비서관 같은 자”(박윤선)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을 관리에게 주어서 의로운 일의 성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은 의를 대적하는 원수의 행동이니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행동이다.”

뇌물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인터넷 웹 사이트에선 뇌물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권(職權)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이러한 뇌물은 결국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므로 말미암아(출23:8) 부정부패[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인터넷)]란 썩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썩은 열매의 쓴 뿌리는 결국 돈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딤후3:2). 돈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뇌물을 받는 것이고 뇌물로 인하여 판단력과 양심이 흐려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분쟁과 나뉘고 요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심비에 계속 깊이 적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습니다(스4:6).

즉, 대적들은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에게 글을 올려 고소했습니다(6, 8절).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대적들은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12, 15, 19절)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13절)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패역한 성읍은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5, 19절). 더 나아가서, 그 고소 내용에는 만일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역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16절).

요즘 “고소”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수 없이 듣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사건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소하는 소식을 접할 때 저는 가끔 고린도전서 6장 5-6절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자들 앞에서 하느냐.” 주님의 몸 된 교회 한 지체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비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고소하게도 하지만 또한 믿는 성도를 유혹하여 교회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사단은 교회를 갈라놓게 하기도 하고 또한 무너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17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21절). 결국 이 조서를 받은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예루살렘 성읍 및 성전 재건 역사를 그치게 하므로 말미암아(23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제 이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24절).

사탄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갈라놓고 무너트리려고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약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자극하고 또한 돈 문제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게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들 간에서 서로 고소까지 하게 만들므로 세상 법정에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 결국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여 그가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 있게 하시므로 말미암아(6:22)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마16:18) 어떠한 사탄의 대적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망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3)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기 1장 11절, 2장 5, 9절).

욥이란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욥1:1).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사탄에게도 자랑하셨습니다: “...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8절).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9절)라고 의문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순전하고 정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11절).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소유물[“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거리요 암나귀가 오백” (3절)]을 치고 더 나아가서 욥의 열 자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 (2절)]까지 쳤습니다(1:13-19). 이 소식을 접한 욥은 과연 주님을 욕했습니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은 모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소유물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어나 걸뚝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20절).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욥의 믿음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밧세바와의 동침에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 금식하다가 신하를 통해서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삼하12:20) 욥 또한 자식 열 명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사탄은 욥으로 하여금 주님을 욕하게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 성공하지 못한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갔습니다(욘2:1).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그 때 사탄은 하나님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5절)고 말한 후 하나님의 허락아래(6절) “욘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했습니다(7절). 그 결과 욘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8절). 그 모습을 보던 욘의 아내는 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9절). 그 때 욘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10절). 결국 욘의 아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욘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10절). 사탄은 또한 욘으로 하여금 주님을 욕하게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소유물을 치던 자녀를 치던 건강을 치던 간에 결국 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과연 나는 욘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혹여나 욘의 아내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욕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나 자아 성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욘의 아내는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때에 자녀들이 다 죽고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도 욘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욘기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음). 그것을 볼 때 욘의 아내도 굉장한 큰 믿음, 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욘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에 가서 주님을 욕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저로 하여금 주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욘처럼 입술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경배하여 찬양하는 고난을 통한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4)

[사도행전 21장27-36절]

조엘 박 목사님의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단우월주의, 헌금, 교회건축문제, 그리고 잘못된 설교와 기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돌 또는 수백 개로 나눠놓고 있으며, 교회와 교단의 막힌 담은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장벽보다 높고 견고하다" 면서 "화평과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헐었지만 한국교회는 바벨탑보다 더 견고하게 담을 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책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대형교회를 다니던 교인 3천200여명이 지역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출판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책 제목인 “한국 교회를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와 같은 '한통예'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교회 복귀운동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세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 개신교 목사가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잘못과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해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반대세력인 안티들조차 언급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실정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 비판의 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건설적인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비건설적인 비판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건설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비판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제 개인적인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militant church)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딤후4:7). 우리는 승리의 확신(assurance of victory)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탄과 그의 전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3절을 보면 우리는 결국 성령님의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박당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박해자들인 아시아로부터 온 불신 유대인들(27절)이 어떻게 바울을 결박하게까지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 4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종들의 전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패턴을 알아 갈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알아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전략(유혹)은 “총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나실인을 서약 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각종 희생 제물을 비용을 치러주고 그들의 희생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날이 눈앞에 있을 때 오순절 절기를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유상섭).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모든 무리를 어떻게 총동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서슴없이 폈습니다. 그 거짓된 주장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유상섭):

(1)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 이 주장은 충분히 유대인들을 총동시킬 수 있을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성전(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근본 요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율법과 성전(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여 가르치는 자라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총동시켜 격노케 할 만한 주장 이었습니다.

(2) 바울은 심지어 헬라 인들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후반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 당시 성전에는 레위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 남자의 뜰까지 경계의 벽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들의 주장은 바울이 큰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경계의 벽에는 경고문이 있었는데 그 경고문에는 이방인들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섭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것도 즉석에서 사형에 처해질 심각한 죄가 되는데, 이를 넘어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유상섭).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바울의 대적자들인 유대인들이 억측해서 주장을 편 것입니다(29절)(유상섭).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추측 속에서 성전 안 이스라엘 남자의 뜰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총동시켜 바울을 붙잡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이고니온에서도 겪었습니다(14장).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 가서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도 경험하였지만(1절) 그 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므로(2절)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리 치려고 달려드는(5절) 이러한 고난과 핍박도 겪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를 보면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라고 적혀있습니다(2절). 즉,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넣어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주장을 펴서 교인들을 총동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그저 추측 가운데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장을 피므로 결국 주위 사람들을 총동하여 자기편을 만들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6장 28절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패려한 자는 다통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자꾸만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총동시켜 다통을 일으키는 일이 충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부각시키며 총동질하여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총동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간교한 뱀이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소리를 자꾸만 들려주면서 아담을 총동질 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행사 하도록 자꾸 총동질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며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힘과 꾀와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복을 쟁취해 나가도록 자꾸 총동질”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이 사탄의 총동 질로 말미암아 그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주장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피면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총동질이 아닌 학개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전략(유혹)은 “소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속에서 바울을 붙잡고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피므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총동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 이방인의 뜰로 끌려 나와 죽음을 당하려는 찰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군대의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 전까지 바울을 쳐 죽일 작정으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32절)(유상섭).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총동질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며 요란하게 되었습니다(31절).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총동질을 하여 교회 전체를 요란하게 만드는 일들은 지금도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읍니다. 그런데 그 총동질을 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은 자기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억측을 부리면서 교회의 평화를 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평화를 깨고 요란하게 한 장본인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8절) 귀신을 나오게 하였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19절) 가서 하는 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한다는 것이었습니다(21절). 결국 이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 문제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끌고 가서 이들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자기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인하여 총동질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인 소동 또는 요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탄의 전략(유혹)은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총동하여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보고가)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에게까지 들리므로 말미암아(31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가서(32절)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했습니다(33절). 그런 후 천부장은 모인 백성들에게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33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었습니다(34절). 결국 천부장은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34절).

과연 소문 퍼지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러한 흥미로운 글이 있어 나눕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수학적 계산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사람이 3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문을 가지고 아침 8시에 나타났다고 하자. 그는 단 세

사람에게 이 소문을 전한다. 이 소문을 전달하는 데 대략 15분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면 아침 8시 15분에 이 소문은 이 도시에서 네 사람이 알게 된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세 명의 사람은 각각 그 이야기를 다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15분이 걸린다.

8시 30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4+(3 \times 3)=13$

8시 4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3+(3 \times 9)=40$

9시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40+(3 \times 27)=121$ 명

9시 1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21+(3 \times 81)=364$ 명

9시 30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343+(3 \times 243)=1,093$ 명

9시 4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093+(3 \times 729)=3,280$ 명

10시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3,280+(3 \times 2,187)=9,841$ 명

10시 1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9,841+(3 \times 6,561)=29,524$ 명

결국 소도시 사람들이 이 소문을 알게 되는 것은 2시간 30분 이전이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퍼지는 속도는 아마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이면 몇 백만 명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소문의 속도는 대단하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인터넷).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악성 루머를 퍼트려서는 아니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미국 이민 한인 교회 당회에서 2007년 12월 9일 날짜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 정립을 위하여, 소위 ‘퀵사모’라고 자칭하는 불법 집단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글”라는 제목 아래 글이 나와 있어 좀 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 중 보니까 “자칭 ‘퀵사모’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배경”이란 소주제 아래 이런 글이 있어 나눕니다: “본 교회 당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자칭 ‘퀵사모’라는 일부 극소수 그룹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불온 문서를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단 한 사람도 ‘퀵사모’ 멤버임을 자인하는 성도가 없었다. 이들은 교회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특정성도 또는 사역자를 근거 없이 모함해 왔지만 사랑의 권면과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그 소수그룹의 회개를 바라며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 이들의 언사와 행동은 성도라고 불려서도 안 될 정도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행11:22)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21절). 또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탄의 전략(유혹)은 “포행”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소동과 요란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백성들에게 붙잡혀 매 맞고 있었을 때(32절)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과 도착하여(32절) 우리들에게 바울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33절) 사건의 진상을 소동으로 인하여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우선 바울을 주둔군 진영 안으로 데려 가라고 명했습니다(34절). 이에 바울이 인술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갈 때 군인들은 우리들의 폭력적인 조짐을 포착 하고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35절)(유상섭). 군인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조짐을 파악한 것은 백성의 무리가 그들을 뒤따르며 바울을 제거하라고 외쳐댔기 때문입니다[(36절) “우리가 그를 없애 하자”가 아니라, “너(천부장)는 그를 제거하라”임](유상섭). 이러한 외침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제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총독 빌라도에게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던 것(눅23:18)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인 “포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과 그의 종들은 유혹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면서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까? 욕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가 봅니다. 교회 안에서나 특히 교회 밖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서슴없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담담합니다. 어느 교회는 제직회 때도 장로님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다투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먹살을 잡고 또한 교회 밖에서 혈기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사용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 한국 야후 인터넷 판 뉴스를 보니까 술자리에서 목사 세 사람이 술 먹다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지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먹냐고 라고 말해서 폭행한 사건을 기사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참 할 말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포행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포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총동시켜 소동을 일으키며 교회를 요란케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악성 루머(소문)까지 퍼트리게 만들어서 교회의 평화를 깨고 질서를 무너트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제거하는) 일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략인 총동(질), 소동(요란), 소문 및 포행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5)

[느헤미야 4장1-3절]

교회 안에서 “누구를 조롱합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따위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충성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교인이 교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면 조롱을 받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까? 바로 산발랏(1-2절)과 암몬 사람 도비야(3절)였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1절). 암몬 사람 도비야도 산발랏과 더불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2:19). 이것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공작으로서 야비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실망과 두려움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White).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 못하도록 건축자들의 폐기(morale)를 파괴하려는 의도였습니다(Packer). 이 대적자들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산발랏의 조롱(2절)과 도비야의 조롱(3절)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한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재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산발랏의 조롱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우리는 그의 5가지 조롱 섞인 질문에서 5가지 사탄의 전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산발랏의 조롱 섞인 첫 번째 질문은 “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2절a).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하는 자들인 유다 백성들(workers)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심리전에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든지 혹은 상대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면 됩니다. 산발랏은 자기 형제인 사마리아 인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형편없고도 치욕스러운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란 말은 “Miserable Jews”, 즉 비참한 혹은 불행한 유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ml)는 구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a) 사라지는 혹은 시들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고, (b)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사19:8; 호4:3). 본문에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은 유다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기에 가치 있는 일 또는 훌륭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조롱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전략에 수 없이 넘어갔었고 지금도 자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사탄은 저의 마음에 자꾸만 ‘제임스, 넌 부족해, 넌 연약해, 넌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넌 쓸모없어’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탄의 음성을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탄은 나 자신만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등등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까지 하게 만들곤 합니다. 진정한 자아성찰은 나 자신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나 자신만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27-28절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고전1:27-28) 사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우리의 천함, 멸시 받는 것들과 없음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하며 좌절케 하므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 산발랏의 조롱 섞인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입니다(느4:2b).

여기 두 번째 질문에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 자체(work), 즉 예루살렘 성 재건이었습니다. 이 조롱을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시작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말이라고 John White는 말하고 있고 J. I. Packer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확실히 그들의 능력 밖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처럼 숫자가 적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승리장로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남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등등의 조롱 어린 질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조롱입니다. 사역에 지쳐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이러한 조롱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John White는 “자신이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하여 의구심이 일어나려 할 때 자신이 이미 느끼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것이다” 고 말하면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연약한 상황과 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미 유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들은 지쳐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산발랏의 이 두 번째 조롱인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먼저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부각시킨 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작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크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므로 우리

스스로 낙심케 하며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은 이 모든 미혹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면 어떠한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도 할 텐데 사탄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큰일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작게 보게 만들고 또한 그는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며 절망하게까지 만듭니다.

(3) 산발랏의 조롱 섞인 세 번째 질문은 “...제사를 드리려는가 ...”입니다(2절c).

이 세 번째 조롱은 그 뜻이 분명하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John White는 말하기를 산발랏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유다 백성들)의 믿음(faith)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연 저들은 기도가 성벽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산발랏의 조롱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일인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조롱하더니 이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의 믿음(신앙)을 공격합니다. 처음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공격하여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기도와 예배로 되겠는가?’라고 우리를 조롱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위하여 또한 태신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조롱을 듣는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과연 나의 태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의심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신앙 가운데 불충성하게 만듭니다.

(4) 산발랏의 조롱 섞인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입니다(2절d).

이 네 번째 조롱의 핵심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즉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느냐’입니다. 안 그래도 “힘이 쇠하”(10절)여 지쳐있었고 또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산발랏은 이렇게 크고 힘든 일을 얼마나 걸려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더욱더 낙심케 하려는 의도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의 무능력함을 공격하므로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으며 견디지 말고 인내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조롱이요 유혹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매우 커 보이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큰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작아 보이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포기하게 만들고자 애씁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부각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감당해야 할 일의 크기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므로 결국은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5) 산발랏의 조롱 섞인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입니다(2절e).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건축 재료(materials)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돌들이 이미 소화되어서 소용없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었던 소화된 돌들은 아직도 건축 재료로 쓰기에 좋은 것들이었다고 White는 말하고 있습니다. Packer도 그 때 소화된 것은 성문이었고 성벽은 무너트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돌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실망시키려고 맞는 말(소화된 성문 재료는 쓸 수 없었음)과 더불어 틀린 말(소화된 돌들은 쓸모가 있었음)을 슬쩍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조롱 섞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사탄은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구약 말씀을 좀 빼놓아서 인용한 것처럼 사탄은 무조건 거짓말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더하기 진리(진리 +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저 밖에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생각과 발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두렵고 낙망하여 지친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작다 보니 일할 사람도 없고 자원(resources)도 부족하고 등등 자꾸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단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이 산발랏의 5가지 조롱 후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의 조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목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야의 조롱은 이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3절).

여기서 도비야의 조롱 핵심은 완성된 생산물(finished product), 즉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될 찌라도 너무나 약해서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a breach)입니다. 즉, 여우가 올라가도 예루살렘 성벽에는 갈라진 틈이 생길 것이라는 조롱입니다.

저는 이 도비야의 조롱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약 5년 전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목상하며 설교케 하셨는데 그 때 이 도비야의 조롱을 목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틈”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마16:18)을 성취해 나아가심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먼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렇게 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가 410장 1절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약 5년 지난 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발랏의 조롱 섞인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제 자신이 얼마나 사탄에 노출돼있는지 제 자신의 틈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미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는 일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가운데 저로 하여금 인내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게 하시므로 힘을 얻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 여러분, 승리장로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대적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충실히 섬기십시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을 조롱하며 우리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롱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조롱하며 도전할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b)

“그러자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앓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네가 무엇을 믿고 이처럼 대답해졌느냐?’(이사야 3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놓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 놓고 결국에는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자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지금도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네 번 목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금 사탄의 5가지 전략을 복습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전략 (1): 출애굽기 14장 3절

1. 우리로 하여금 목표가 없이 방황하며 살게 하는 것,
2. 우리를 코너에 몰아세우는 것

사탄의 전략 (2): 에스라 4장 4절

1.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
2. 우리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
3. 우리를 고소하는 것

사탄의 전략 (3): 욥기 1장 11절, 2장 5, 9절

1. 우리의 소유를 치는 것
2. 우리의 몸을 치는 것

사탄의 전략 (4): 사도행전 21장 27-36절

1. 우리 주위 사람들을 총동시키는 것
2. 우리 주위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
3. 우리에게 대해 거짓 소문을 내는 것
4. 우리에게 포행 하는 것

사탄의 전략 (5): 느헤미야 4장 1-3절

1. 우리를 조롱하는 것
 - a. 사람, b. 일, c. 믿음, d. 능력, e. 자원, f. 생산물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 4절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전략 (6)”이란 제목 아래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의 전략을 한 3가지로 목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서 놓습니다.

성경 이사야 36장 7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였습니다(1절). 앗수르 왕 산헤립은 라기스에서 대군과 함께 자기 군 지휘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2절). 보냄을 받은 랍사게는 유다 왕궁을 맡은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역사관 요아에게 말을 합니다(3절). 그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앗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알려 주어라. 네가 무엇을 믿고 것처럼 대담해졌느냐?”(현대인의 성경). 랍사게는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에게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 “군사력과 전략”(5, 8절, 현대인의 성경)이던지, “애굽”(이집트)이던지(6, 9절), “하나님 여호와”이던지(7, 15절) 또는 그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던지(14-18절)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18-20절).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것처럼 대담해졌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4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대담해진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랍사게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대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노력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히스기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에게 “네가 무엇을 믿고 것처럼 대담해졌느냐?”(4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7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15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14), “속지 말라”(18절),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14절)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서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20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신뢰하는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20절).

사탄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큰 문제와 역경 속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믿지 말고 그의 말에 미혹되지 말며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과 전략을 명심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성경 이사야 36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앗수르 왕 산헤립의 군 지휘관인 랍사게는 유다 왕궁을 맡은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역사관

요아에게 앓수르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그 제안은 “만일 너희가 말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였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랍사게가 그리 말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 중에는 앓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싸울만한 “말 탈 사람 2,000명”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랍사게는 유다 군인들이 자기 나라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조롱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조롱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대적자인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의 무능력함을 공격하므로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느4:2, 10). 힘들고 지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으며 견디지 말고 인내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큰일을 중단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및 무능력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못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12:2).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이사야 36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앓수르 왕 산헤립의 군 지휘관인 랍사게는 유다 왕궁을 맡은 엘리아킴과 서기관 셉나와 역사관 요아에게 유다 땅을 쳐서 멸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진정 앓수르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쳐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앓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10:5-6) 결코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는데(36:10)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랍사게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 랍사게가 “여호와와 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14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들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15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들을 행복케 하고자 설득하려고 했습니다(15, 16절).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랍사게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득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15, 16절).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었습니다(18, 20절).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랍사게의 말에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21절).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힘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30:15).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에 충분히 설득당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롬4:21).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요8:44).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며 그는 거짓을 말합니다(44절). 그의 거짓말은 진리에 거짓을 더하든지 빼든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힘들게 합니다. 특히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데 사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 혼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요8:32).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여 놓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7)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사사기 16장 15절).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5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성령님의 힘’입니다. 제가 이 5가지 힘을 구하는 이유는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구하는 이유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저는 그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수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고전15:10). 또한 제가 주님께 사랑의 힘을 구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제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없음을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많이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만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물댄 동산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많이, 넓게,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에만이(엡3:19)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마22:37-39). 이렇게 저는 주님께 5가지 힘을 구하곤 하는데 문제는 사탄은 이 5가지의 힘과 정반대로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제가 주님께 은혜의 힘을 구할 때 제 생각에 은혜 의식 보다 공로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눅17:10) 사탄은 제 자신을 우쭐되게 자극하며 또한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 사람들 중에서 으뜸 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요삼1:9). 결국 사탄은

저로 하여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 아닌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제 머리에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사탄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신8:17).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인데도 말입니다(18절). 또한 사탄은 제가 주님께 사랑의 힘을 구할 때 제 마음에 미움을 싹트게 하여 제 아내조차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일3:15) 사탄은 저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제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미워하고 또 미워하게 부단히 제 삶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주님께 말씀의 힘을 구할 때 사탄은 저로 하여금 성경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저의 형제, 자매들 위에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신17:19-20). 그 뿐만 아니라 사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진리 그 자체보다 그 진리의 말씀에 추가하던지 빼던지 하게 거짓말을 제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저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졸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마26:41) 사탄의 목적은 저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기에 자꾸만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저로 하여금 서서 제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충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힘을 구할 때 사탄은 죄악 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부추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저로 하여금 성령님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갈5:16-21). 이렇게 사탄은 제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5가지 힘과 정반대로 제 삶에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부터 저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공격하여 자꾸만 제 생각의 영역에서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제 마음의 의심을 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저로 하여금 힘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서(히12:2) 제 시선을 자꾸만 돌려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걷는 저로 하여금 “바람”을 보게 하고 제 마음을 두렵게 하므로(마14:30) 두려운 상황에 이끌림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5절을 보면 사사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인 들릴라(4절)가 삼손을 날마다 재촉하여 조를 때(16절) 한 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15절). 여기서 들릴라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은 실제로 들릴라가 알고 싶었다기 보다 그녀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었던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들릴라에게 가서 “너는 삼손을 꺾어 그가 지닌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눌러 묶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였기에(5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삼손에게 네 번이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6, 10, 13, 15절). 즉, 들릴라가 원했던 것은 삼손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가 라기 보다 그녀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었던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각각 은화 1,100개씩(합계: 5,500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녀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1)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마르지 않은 잎 일곱 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7절), (2)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11절), (3)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자면 되리라”(13절). 이렇게 삼손이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15절)라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16절).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털어 놓았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17절).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삼손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고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19-20절).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2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넘어갔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삼손은 들릴라의 배후 인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 뒤에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자기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능히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들릴라로 하여금 자기를 꾀라고 시켰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저도 삼손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때에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 뒤에 사탄이 배후 조종하여 저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의 작은 믿음을 흔들려 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흔들려 놓되 사탄은 저로 하여금 제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문제나 고통 등을 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만들므로 저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왕좌왕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저의 취약점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임을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제 가족 식구를 통하여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세 번째 거짓말에 가서는 자기의 머리털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저는 삼손이 들릴라에 꾀에 점점 더 넘어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때에는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아직 마르지 않은 일곱 가닥의 푸른 칠팀굴”(현대인의 성경)] 자기를 결박하면 자기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7절) 두 번째 거짓말 때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자기를 결박하면 자기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11절)을 보면 삼손은 들릴라에 꾀에 전혀 넘어가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릴라에게 세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 자기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자기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어느 정도 들릴라의 꾀에 넘어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다가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으므로(16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17절).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삼손의 첫 번째 여자였던 덤나에 사는 여인과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14장). 삼손이 덤나에 내려가서 그녀를 보고(14:1) 그녀를 좋아하게 되어(3절) 자기 부모에게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2, 3절).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덤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로 삼은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10-12절). 그런데 그 30명 친구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일곱째 날[NASB는 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인 덤나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15절).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 잔치 기간인 7일 동안 계속 울고 삼손에게 즐라대자(강요함으로) 삼손은 견디지 못해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삼손은 이미 첫 번째 여자였던 덤나 여인에게 재촉을 당해보고 그녀가 7일 동안 울고 즐라대므로 견디지 못해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말해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시 들릴라가 날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란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결국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다 털어 놓은 것입니다(16:15-17).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을 날마다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창39장). 그녀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6-7절). 그 때 요셉은 그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8절). 그 이유는 그는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금한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에게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9절). 그런데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도 들릴라처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모습입니다(10절).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절). 심지어 요셉은 그녀와 단 둘이 집에 있었을 때에도 그녀가 자기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든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12절). 삼손도 요셉처럼 들릴라가 자기에게 아무리 날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재촉하고 조른다 할지라도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삼손은 결국에 가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진심을 다 털어놓았습니다(삿16:15, 16).

이 사실을 볼 때 저는 삼손과 요셉을 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삼손은 왜 요셉처럼 여인의 유혹(꾀)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제 생각에 이 두 남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여(잠8:13) 악을 멀리했지만(참고: 욥1:1, 8; 2:3, 28:28)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삿13:4, 7). 즉, 삼손은 부정한 이방 여인들을 세 명이나 가까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딤나 여인(14장), 가사 기생(16:1), 들릴라(4절)] 부정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먹었고 또한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고 드러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14:6-9).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답게(13:5, 7) 살지 못했던 삼손은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것도 모르고 그녀의 꾀에(16:5) 자기도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주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결국에는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처럼 행하고 싶은데 제 육신은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삼하12:14). 사단은 저의 취약점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므로 저를 낙심시키며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창39:10)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삿16:19). 아니 어떻게 삼손은 자기를 꾀었던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를 밀면 자기의 힘이 떠난다는 말을 다해놓고도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잘 수가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은 들릴라는 사랑하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들릴라의 배후 조종하고 있었던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에게 진심을 다 털어 놓고도 그 결과를 전혀 예상도 못했기에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의 신경반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니까 즉각 반응으로 살기위해 튀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 했는데 상황 변화를 느끼지도 상황에 대응하지도 못한 개구리는 서서히 삶아져 죽어갔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삼손이 서서히 삶아져 죽어간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했던 것처럼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의 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자기의 진심을 다 털어 놓고도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보기에 ‘나 잡아먹으세요’가 아니고 무엇이였겠습니까.

성경 잠언 7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한 한 지혜 없는 자가 생각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갈 때(잠7:8)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오히려 돌이켜 떠났어야 했습니다(4:15). 그러나 그는 그 음녀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걸어가되 그 음녀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말입니다(7:9). 제 생각엔 이 어리석은 소년은 깊은 밤의 중 가운데 은밀하게 창녀의 집으로 간 원인은 그가 그의 눈의 중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쩌면 그는 그의 눈으로 자기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 음녀를 은밀히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6절).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집으로 갔을 때(8절) 그 “간교한 계집”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10절). 그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 음녀는 그 어리석은 자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었습니다(21절).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영어로 “seduce” (유혹)입니다. 이 영어 단어 “seduc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 문자적 의미는 “to lead astray” 곧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미혹시키다’ 또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유혹과 꾀가 관련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여 행동 선택을 하게 만들되 그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Wikipedia). 그러면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켰을까요? 적어도 3가지입니다: (1) 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10절 -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 (2)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13절 - “그 계집이 붙잡고 입을

맞추며 …”). (3)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21절 - “여러 가지 고운 말로 … 입술의 호리는 말로”). 지금도 사탄은 어리석은 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키곤 합니다. 사탄의 저의 취약점인 성적으로 유혹하여 마음으로 간음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과 이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수 없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 (8)

**“그 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무엘상 18장 9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질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질투고 또 다른 질투는 사탄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므로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사탄의 질투는 죄를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악한 것입니다(Pusey, 박윤선). 하나님의 질투에 관하여 좋은 예는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민25:7) 시므리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8절). 그 결과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8절). 결국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11절). 사탄의 관하여 좋은 예는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9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사울의 이 질투의 눈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살인적인 질투의 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15:11, 18-19)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23, 26절, 16:1)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14, 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12절)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있었습니다(13절). 그 때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했고(16절)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18절).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크게 사랑하여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호위병)로 삼았습니다(21절).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크게 사랑하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17:45) 나가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23절, 현대인의 성경)과 싸워 칼 하나도 없이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서 그 블레셋 거인(50절, 현대인의 성경)을 죽여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라고 노래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18:6-8).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현대인의 성경)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하고 그 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8-9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악령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사울은 평소 때와 같이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던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해 도망했습니다(10-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말팔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정말 용감한 군인임을 입증해야 보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는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그 계획에도 차질이 있으니까(19절)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또 한 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20-21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자기는 아무 예물도 바라지 않고 다만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 말한 이유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살인적인 질투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관계를 비틀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죽이려고 하게 만드는 관계로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최악 된 질투요 살인적인 질투요 또한 사탄의 질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 의식(열등의식?) 속에서 상대방 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족되지 못하게 만들되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보다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높임을 받게 하므로 그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극대화하므로 우리 마음의 질투심을 불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미운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그 미운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야 합니다(민25:11).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출20:5; 34:14).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3절)와 모든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시5:4).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야 합니다(잠8:13; 16:5).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 견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 보다 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질투하는 마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4:23).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길 기원합니다(시121편).

사탄의 전략 (9)

“그리고서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시오’ (열왕기상 21장 8-10절, 현대인의 성경).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함부로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상에 잘못 올렸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악의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나쁜 거짓된 글을 올려서 모함을 한다든지 이상한 소문을 퍼트린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글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입은 치명적인 상처는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서 글이란 것은 부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8-10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아합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사는 지도자들(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 마디로 나봇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1-2절). 그 이유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2절).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값 후하게 매겨 돈을 많이 줘서라도 사려고 했지만(2절) 나봇은 자기 조상의 유산을 아합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3절). 그 때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하고 있으니(4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근심이 있길래 자기 남편이 식사를 하지 않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5절). 그 때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팔거나 내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더니 그가 거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7절)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저는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 앉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9절을 보십시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현대인의 성경).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지도자(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내린 첫 번째 지시(11절)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왜 이세벨은 그리 지시를 내렸을까요? 어차피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 뭐 하러 금식일까지 선포하면서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 나봇을 상좌에 앉히라고 명하였을까요? 과연 나봇이 그 높은 곳에 앉았을까요? 만일 그가 앉았다면 과연 그가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3절).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산을 아합 왕에게 주는 것을 금하셨다는 나봇의 말을 생각할 때(3절) 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 받기를 좋아하여 잔치와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23:6).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만듭니다. 대접을 받게 만들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상석에 앉히려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상석을 좋아하게

만들어(눅20:46)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여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고 극대화시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도 의도적으로라도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높은 곳에 앉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교만해질 위험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 그의 마음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빌2:5-8).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하고 ….”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지도자(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내린 두 번째 지시는 건달 두 사람(현대인의 성경)을 세워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 증거란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10절). 이 얼마나 간교한 계략입니까.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도 없었는데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13절).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나봇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합 왕을 아무리 악하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봇이 저주했겠습니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어 버리고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요8:44).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합니다(44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44절). 그의 계략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되 사탄은 진리에서 더하든지 빼든지 하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거짓말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사탄은 자기의 종인 거짓 증인들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소문내서라도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떠한 거짓말과 모함 속에서도 우리의 진실성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견지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이나 그의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여 거짓말을 버리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지도자(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내린 마지막 세 번째 지시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11절) 결국에는 우리가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려 쳐 죽였습니다(13절). 그리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였습니다(14절). 이 통보를 받은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일어나 그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15절). 그래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고 내려갔습니다(16절).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아합은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자기 이웃의 포도원을 탐내었고(출20:17) 그의 부인인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여서라도 아합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악합니까. 한 나라의 왕과 여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나봇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지니 이 얼마나 악합니까(19절).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를 충동하였습니다(20, 25절).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에게 대하여 아무 죄책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 왕을 만나(18절)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핏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21-22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23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24절).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마10:28).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목상 글을 써서 제 개인 Facebook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 글을 공개한다는 것은 한 쪽으로 생각하면 말씀 전파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위험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드는 생각은, 마치 짐승이 덫에 걸리듯 제가 제 자신이 쓴 글에 걸려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취보고 반영하면서 진솔하게 글을 적어내려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 허물도 글로 적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제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각자 나름대로 글을 해석하되 특히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제 글을 읽는다면 전혀 제 의도와는 달리 제 글을 충분히 오해하여 왜곡하므로 저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보다 더 글을 쓰고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글을 쓰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목상하면서 그 목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저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사탄은 저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 앉혀 저로 하여금 마음을 교만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그의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저의 말씀 목상의 글들을 거짓화하여 저를 모함하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하는 목적은 저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되 사탄은 저의 육신을 죽이기보다(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저의 믿음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저로 하여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약2:26). 사탄은 저로 하여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7:21). 그러다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더욱더 충분히 누리길 원합니다.

사탄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사도행전 6장 8-15절]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Treacher Collins Syndrome)을 아십니까? 2005년 3월 1일 저녁 TV 시청자들은 '얼굴 없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 살배기 이여아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오렌지 파크에 살고 있다. 이름은 줄리애너. 아이는 위턱과 뺨, 눈구멍, 콧바퀴 등을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처럼 뼈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얼굴 없는 상태'가 된 증상을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Treacher Collins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의료진은 “줄리애너의 상태가 지금까지 사례 중 최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는 14번의 외과수술을 받았다. 앞으로도 최소한 30번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군에 근무하고 있는 부부는 “사랑스러운 이 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감사한다. 아빠인 톰은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 딸이 모든 이에게 보여줄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얼굴이 없어도 ‘선물’이라며 감사하는데 선물을 ‘가치 없는 상품’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인터넷). 이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에 걸린 줄리애너에 대한 한 인터넷 기사에 반응들 중 최고의 발언은 “우리 나라였다면 아이가 버려졌거나, 아이가 부모님 손에 자라더라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안 받아줄 듯....” 그 다음 발언은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자고 내일 눈떴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런 (편견 없는 동심의) 나라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웬지 씁쓸해지고 부끄러워지는 .. 딸아이와의대화 ... 반성되네...”. 그 다음 발언은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장애인이거나,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손발 멀쩡하고, 몸 멀쩡한 거만해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한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인터넷).

우리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얼굴 없는 아이'처럼 '얼굴 없는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링컨의 그 유명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나이 사십이 넘어서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찌꺼기가 가라앉은 구정물통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막대기로 속을 한 번 뒤집어 놓으면 콩나물 대가리, 밥풀, 무 조각 등 가라앉은 것이 모두 떠오르고 맙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 속을 뒤집어 보아야 압니다. 평안하고

은혜 받았을 때야 모두 천사의 얼굴입니다. 속상할 때 보아야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맑은 그 모습은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말씀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사탄의 얼굴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이 돼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얼굴이 되면 안 되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외모는 온전한 아름다움입니다(겔28:12-13). 찰스 스탠리는 그의 책 “마음 전쟁”(When the enemy strike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남의 탈’을 쓰고 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인터넷).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이름을 보십시오: 사탄, 악마 (비방하는 자), 루시퍼(아침의 아들), 바알세불(파리의 왕- 마 12:24), 그리고 벨리알(불법자- 고후 6:15) 마귀(요일 5:19) 유혹하는 자(살전 3:5) 세상의 임금 (요12:31) 이 시대의 신(고후 4:4),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형제를 참소하는 자(계 12:10) 그리고 빛의 천사(나쁜 빛-고후 11:14) 뱀(계12:9) 그리고 용(계 12:3). 사탄의 속성을 보십시오: 사탄은 창조된 천사적 존재입니다. 그는 천사의 영역의 부분으로 창조 되었었습니다. (엡6:11-12, 겔 24:18) 그리고 그들 모두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겔 28:12-14). 사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악을 키워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행동은 사탄은 세상(이곳에서 사탄은 극히 자유로움과 힘을 갖고 있으며(요12:31;요일 5:19)과 육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세상과 육신과 악은 기독교인의 세 가지 분리된 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본성을(롬 7:18; 갈 5:19-21)이용하도록 악한 세상의(요일 2:13-15) 체계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은 사탄은 묘사 , 유혹, 공격, 소유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동 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의 역사는 (2) 사탄은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자만하도록- 역대기상21:1-8; 세속적으로-요2:15; 야고보 5:1-7; 비도덕적으로- 고전 7:5; 거짓말하도록 -행 5:3; 실망하도록-베전 5:6-10;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고후 2:10-11), (2) 사탄은 믿는 자의 사역을 방해한다(살전 2:18; 계 2:10), (3) 사탄은 믿는 자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을

촉진시킨다.(요일 4:1-4), (4) 사탄은 분노, 슬픔, 분을 촉진시킨다(엡 4:26-27; 고후 2:5-11)(인터넷).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종노릇하여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리버디노”(the Freedmen) (9절), 즉,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로서 전에는 포로였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로서 각각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의 흠어진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9절, 유상섭). 과연 사단의 종노릇하던 이들은 어떻게 스테반을 공격하였습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11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하고.” 여기서 “가르쳐 말시키다”(secretly persuaded)라는 말씨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헬라어로 그 뜻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유상섭). 스테반을 대적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은 사람들을 내세워 자기들을 거짓 증거로 대변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짓 선전토록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선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스테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였습니다(1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수하여 세운 자들은 스테반이 하는 말을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그들이 마치 스테반이 한 말의 목격자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유상섭). 스테반을 공격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꾸며서 스테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스테반이 하는 말을 전혀 들은 바도 없는 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케 한 것입니다. 결국 매수된 자들이 공공장소로 나가서 스테반이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혹은 “충동시켜”(stirred up)(12절)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가 되어 스테반에게 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합동작전, 사도들을 대적하던 자들도 합동작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 안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스테반을 없애고자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의 종들은 매수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거짓 증인 역할까지 시켰습니다(13절). 그들이 거짓 증인으로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한 말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는 것이었습니다(유상섭).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이 사단의 종들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모세 율법을 빙자하여 진정으로 거룩한 스테반 집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거짓 증인의 삶을 살면서 거짓 증거를 일삼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1절의 거짓 증인들처럼 듣지도 못한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음성을 속히 듣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듣지도 안했으면서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므로 오히려 서로를 모함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10절을 보면 “이도드레베”(Diotrephes)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사도들을 망령되이 평론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그는 목회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크게 잘못된 영혼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헐뜯고 비판하는 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영혼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간에 절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행위입니다. 서로가 중상모략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분열에 휩싸이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교회 내에서 주의 형제들을 헐뜯고 모함하고, 그리하여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못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인터넷). 주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10절).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요,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썩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모함하고 장로를 모함하고 성도를 모함하므로 교인들을 총동시키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선도라면, 문서나 언동으로 순진한 대중을 그릇된 사상으로 은근히 부채질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에 대하여 의혹이나 불신 또는 분노를 하도록 짓는 일이 선동입니다. 교회에서는 선도자가 많으면 평안하지만, 집요한 선동자가 있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 분열과 힘 빼기 술수에 말려들어 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천적은 떠버리 선동자들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그럴듯한 말로 남의 옳은 귀를 농락하는 자들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양의 털을 쓴 늑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처럼 순하게 보일지라도 늑대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함하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얼굴이 사탄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며 광명한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천사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이미 부활의 영광중에 있는 예수님을 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이것은 스데반이 평강, 사랑,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말함입니다(박윤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 사색이 될 법도 하였으나 어떻게 스데반의 모습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10절에서 찾아봅시다. 곧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8절)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의 대적자들이 능히 당치 못하였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였기에 협박받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진정한 천사의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광채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모세를 상기시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 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가리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 즉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 명령을 받아 순종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인터넷). “광채는 히브리어로 '카란'(karan)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채 나는 얼굴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채 나는 얼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수준에 이른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의 얼굴은 어떠한 것입니까? “미국 크리스천의 두 얼굴”란 제목 아래 쓰여진 인터넷 기사를 보면 미국 어느 목회자(Anthony B. Robinson)의 설교 내용 중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엔 ‘나, 나 자신, 내 것’이라는 현대적인 삼위일체로 바뀌어졌다(The traditional Trinity of Christianity has been replaced by the modern trinity of ‘Me, Myself and Mine’).”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기주의 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면책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의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얼굴은 이기주의에 빠져 점점 나 밖에 모르는 ‘나의 얼굴’이 더욱더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테반처럼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광채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얼굴에서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청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붓을 들어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다.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말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는 유리잔이 예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다. 현대인들은 종종 예수의 손에 들린 광채 나는 유리잔에 환호하는 우를 범한다. 신앙은 삶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신앙은 유리잔에 가려진 예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다”(인터넷).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수요 기도회 설교를 요약하면서 든 생각)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마 13:19).

나 자신과의 싸움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를 신뢰하길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 형제/자매를 향하여 의심하는 만큼
그/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마음과 육신이 따로

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처럼 행하고 싶은데

제 육신은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삼하12:14).

사탄은

저의 취약점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므로

저를 낙심시키며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미움의 씨

사탄은 우리 마음에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그 미움의 씨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나서 싹이 돋고 나무가 되어 최악 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뿌려진 미움의 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즉각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하와의 불순종한 모습의 비취 볼 때 드는 몇 가지 생각은,

1.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보는 것이다.

선악과가 보암직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서
시선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2.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예 사탄의 말을 듣지도 말고 사탄과는 말을 섞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미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섞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과 멀어지고 '선악과'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므로
나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자
죄악 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 죄악 된 선택의 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Lydia Brownback, LEGACY OF FAITH: From Women of the Bible to Women of Today"란
책을 읽으면서)

하와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세기 3장 6절).

어제 오후부터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Legacy of Faith”(믿음의 유산)(Lydia Brownback)이란 책입니다. 책 목록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자가 각 여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여인은 바로 온 인류의 첫 여자인 “하와”(Eve)였습니다. 저는 하와에 대한 글을 다 읽고 제 나름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하와는 불순종한 여인이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3:6).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와의 모습에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한 3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나의 불순종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성경은 그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한 하와의 마음에는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탐한 것을

보면 그녀는 그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과 음란”일진대(마15:19)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의 아내도 탐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이미 마음으로 선악과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마음으로 탐욕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적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서 시선이 멀어져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볼 때 저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저의 ‘선악과’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들로서 그 예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말씀(마5:28),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시146:3),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엡13:15).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교만한 것을 보면 그 시작은 제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있지 않고 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여겨주시사 회개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제 시선을 돌이켜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불순종은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미혹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아예 뱀의 말을 듣지도 말고 뱀과는 말을 섞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뱀이 다가와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1절, 현대인의 성경)고 물어도 답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1절)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10절)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해도(7절)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10절). 그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1절).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고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11-12절). 그 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들고 자기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든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요셉처럼 이래야 하는데 성경 잠언 7장에 나오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처럼(7절)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간 것처럼(8절) 하와는 멀리해야 할 선악과를 가까이 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그 열매를 따 먹”을 정도의 거리였다면(6절)] 멀리해야 할 뱀을 가까이 하여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창3:1ff). 그 뿐만 아니라 하와는 뱀과 말을 섞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 곳을 떠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탐심 가운데 뱀의 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고 증거입니다.

성경 신명기 5장 27절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 듣기를 더 속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저는 저의 생각의 영역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섞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불쑥 불쑥 자꾸만 사탄의 달콤한 꾀속말이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탄의 미혹의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제 자신에 욕심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약1:14). 그 결과 진리를 떠나(5:19) 시험을 받아(1:14)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 여겨주시사 회개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주 음성 외에는”(새 찬송가 446장)]. 그러므로 제가 더 이상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은근히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더욱더 맛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의 불순종은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6-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미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3:6).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자신의 최악 된 선택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하와로 하여금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나무의 보양직함과 먹음직함과 지혜롭게 탐스러움을 더 원하게 만들어 결국은 그녀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6절).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악과'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므로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자 최악 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 최악 된 선택의 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하여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평과 불신의 보고를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통곡하며 울게 만들었습니다(민13:31-33; 14:1, 11).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14:28-30).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한 죄를 지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33절).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습니다(35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저의 경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한 결과 약 19년 전에 제 첫째 아기가 제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회개치 않은 제 최악의 결과를 고통스럽게 겪은 후에도 아직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오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마26:39)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합니다(빌2:8).

부부를 공격하는 사탄

"사탄은

하와가 아담의 영적 권위를 필요로 할 때

둘 사이를 갈라놓으므로 그 가정을 공격했다.

하와는 남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오히려 남편을 죄로 이끌었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부부 관계 속에서의 사탄의 역사 (1)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 배우자의 허물을 더욱더 잘 보게 하며(잠17:9),

그 허물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게 만들어서(고전13:5),

거듭 말하게 만들므로(잠17:9)

부부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19:13; 21:9, 19; 27:15).

부부 관계 속에서의 사탄의 역사 (2)

사탄은

나로 하여금 내 배우자의 허물을 더욱더 잘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나로 하여금 내 배우자의 허물을 거듭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잠17:9)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keeps no record of wrong)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고전13:5).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 서로에 대해 배려 깊고 결혼의 의무에 충실한 부부는 절대 다른 남자나 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탄은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쉽게 알아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불륜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을 가정을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부는 사탄에게 가정을 파괴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같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만일 사탄의 유혹에 내 배우자가 빠졌다면 ...?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의 뼈와 살을 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탄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한다면 ...? (욥기 2장 4-10절)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결혼을 공격하도록 틈을 보이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사탄은 그 가정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또는 두 사람 모두

결혼하기에는 미성숙한 자들이라면

사탄은 얼마든지 공격의 틈을 찾아낼 것이다.

또 결혼한 부부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부모들이 끼어들 틈을 주었다면

사탄이 그 결혼을 공격하기란 너무나 쉽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

음행의 유혹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민수기 25장 6절).

성적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요일2:16). 사탄은 탐욕의 불을 훨훨 타오르게 하여(잠19:24-29)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남자의 몸을 탐하게 만들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미인계를 사용하여 성적 유혹에 약한 우리 남자들을 넘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유혹은 강하고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6절을 보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문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벌을 받으므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을 받은 이유가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1-2절) 영적 음행까지 범하였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은 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남자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14절). 어떻게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인 수르의 딸(15절)]를 데리고 와서 천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뭐하려고 시므리는 고스비를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설마 천막 밖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있는데 시므리가 고스비를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시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5절)고 명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천막으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미디안 사람들이 고스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18절) 바알브올에 가담케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므로(3절) 영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9절)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는(참고: 18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영적 음행의 죄까지 범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탄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음행의 유혹에 빠트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뿐만 아니라(렘9:14, 히3:13) 우리의 얼굴도 철면피 같이 만들고(렘6:28, 공동번역, 겔2:4) 우리의 양심도 마비시켜서(딤후4:2, 현대인의 성경)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구들 앞에서도 음행의 죄를 떳떳이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떳떳이 범하게 만들되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도(또는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벘후2:14, 새번역).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음욕과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7:2, 새번역).

성적 유혹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집으로 갔을 때(잠7:8) 그 “간교한 계집”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습니다(10절). 그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 음녀는 그 어리석은 자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었습니다(21절).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영어로 “seduce”(유혹)입니다. 이 영어 단어 “seduc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 문자적 의미는 “to lead astray” 곧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미혹시키다’ 또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유혹과 꾀이 관련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여 행동 선택을 하게 만들되 그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Wikipedia).

그러면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켰을까요?
적어도 3가지입니다:

1. 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10절 -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
2.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13절 - “그 계집이 붙잡고 입을 맞추며 ...”).
3.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21절 - “여러 가지 고운 말로 ... 입술의 호리는 말로”).

지금도 사탄은 어리석은 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키곤 합니다.
사탄의 저의 취약점인 성적으로 유혹하여 마음으로 간음하게 만들곤 합니다(마 5:28).
그 결과 사탄은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는 원인은?

왜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력과 강간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는 그 원인이 “안목의 정욕”이라 생각합니다(요일2:16).

사탄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전1:8).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족함이 없기에 다른 여자를 보고 또 보면서 그 여자를 탐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그 원인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요일2:16).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을 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잠5:19). 그 결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56:11).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29:17).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결국에는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골3:5).

셋째로, 저는 그 원인인 ‘미련함’(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잠언 7장에 나오는 한 지혜 없는 자, 즉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말로 호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입니다(5절). 어떻게 사탄은 이 미련한 자를 유혹했을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사탄은 한 지혜 없는 자로 하여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도록 유혹합니다.

(잠언 7: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갈 때(8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오히려 돌이켜 떠났어야 했습니다(4:15). 그러나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걸어가되 그 음녀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7:9). 그는 아무도 자기를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리석은 소년은 남에게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은밀히 깊은 밤에 창녀에게로 간 것입니다(박윤선).

(2) 음녀는 숨겨진 의도로 한 지혜 없는 자를 나와서 맞이합니다.

(잠언 7: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밤 흑암 중에(9절)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8절) 그 음녀는 마치 몸 파는 창녀처럼 옷을 입고 그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했습니다(10절). 여기서 “간교한 계집”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녀가 그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교한 창녀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는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숨기다’(hidden)입니다(MacArthur). 과연 그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꾀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자를 창녀의 옷같이 입고 맞이하는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박윤선).

(3) 음녀는 입술의 호리는 말로 한 지혜 없는 자를 꺾는다.

(잠언7: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꺾므로.”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킵니까?

(a) 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잠언 7: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기서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음녀는 창녀같이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창녀들이 유혹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노출이 심하되 남자들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성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옷을 입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남자들을 유혹하기에 참으로 자극적입니다.

(b)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잠언 7:13상)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 노출이 심하게 옷을 입은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에게 돌진하여 두 팔로 그를 꼭 끼어 앉고 입술에 키스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했을 때 그 어리석은 남자는 안 그래도 그 음녀의 창녀같이 입은 옷을 보고 시각적으로도 이미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 음녀를 자기를 붙잡고 입까지 맞췄다면 그 때에는 성적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교한 음녀는 한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육체적 접촉까지 사용합니다. 그 음녀가 만지고 키스까지 하므로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할진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나 성적으로 자극을 받겠습니까?

(c)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with persuasive words), “입술의 호리는 말로”(with her smooth talk)유혹합니다(21절). 여자도 마차가지라 생각하지만 특히 남자는 오감에 있어서 시각, 촉각과 청각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 받을 때 여자의 몸매 보므로 유혹 당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통해서도 유혹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도 충분히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 π

"밀는 자가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 자신의 삶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

[워렌 위어스비, "영적 전투의 전략"]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

사랑하는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던 암논은
그녀와 억지로 동침한 후에는
그녀를 심히 미워하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쫓아 보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이것은 억지로 동침한 그 악보다
더한 악이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삼하13:1-19)

사탄의 간교한 유혹(꾀)에 넘어간 자는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주셨습니다(마 22:37, 39).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롬5:5)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갈5:22).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빌1:27; 2:2)

함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화되어 가므로

천국의 기쁨(요15:11; 요일1:4)과 사랑(시33:5)과

평화(롬15:13)가 충만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으며(엡2:2; 5:6)

도리어 지옥의 계명인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37:5; 신22:13; 마24:10; 요일2:9).

또한 거짓의 영과 더불어 사탄의 미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서(신21:17; 삼하13:15; 잠10:12)

어두움의 일을 하게 만들므로(사29:15; 겔 8:12; 엡 5:11)

가정의 쓴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롬7:5).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도리어 집 밖에서 맴돌게 만들던지

더 나아가서 집에서 멀리 멀리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배우자를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향한 커지는 미움 속에서

그 부부 관계의 균형의 틈을 노려(참고: 느4:3, 히브리어로 "틈"; 6:1)

사탄은 다른 여자/남자를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으로(요일2:16)

그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외도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 순교자의 아내의 일기

"영광의 문"이라는 책(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에서 다섯 명의 젊은 북미 선교사 순교자들 중 한 미망인인 바바라 유데리안의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밤 대위가 우리에게 강가에서 네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은 로저밖에 없었다
이틀 전 하나님은 내게 시편48:14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로저의 죽음소식을 접하면서 내 마음이 찬송이 충만했다.
그 는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자였다.
주님, 제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다 잘하게 도와주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엡6:4)를 알게 하소서....
오늘 밤 베스가 천국에 가신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 물었다.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아빠가 천국에서 내려와 편지를 받아갈 수 없느냐고.
내가 '그럴 수는 없단다.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했더니
베스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빠가 내려오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미끄러지지 않게 아빠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했다.
선교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 내가 누리는 평화를 설명했다.
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은 생명을 갇아먹는 사탄의 도구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확신한다. ..."

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이 일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다.
아니 받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들을

주님께 받치는 생각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드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신학교 선배 목사님의 둘째 딸이 10살인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다.

언젠가는 나 또한 내 아내나 아이들을 먼저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주님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들도 주님께 받치고 싶다.

그러기에 이 사모님의 일기는 나에게 큰 도전이 된다.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나 자신과 아내, 자녀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 앞에서 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지 않다.

더 큰 영광을 보길 원한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들이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연민보다 우리가 가야할 본향의 영광에 잠기길 원한다.

언젠가 내 아내도 이 사모님과 같은 일기를 쓸 수 있길 기원한다.

물론 내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24절).

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사무엘하 24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 중 하나는 바로 교인 숫자를 계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인 숫자를 계수하게 하되 그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헛된 자부심과 교만함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더욱더 교인 숫자를 늘리기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이런 저런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교회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회사 같다는 말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요하시는 교회 사역, 이제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들은 그리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교인 숫자 증가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담당하고 있는 교구나 부서에
교인 숫자 증가를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인 숫자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는
설교하면서도 교인 숫자를 부풀려 은근히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입니까(행2:47)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양
도독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incited)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incited)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여 죄를 범케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permissive will of God)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삼하24:1) 그들을 대적하셨기(대상21:1)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시사 다윗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사 그들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 그들을 대적하신 이유는 그들이 일시 동안 압살롬의 반역을 따랐고(삼하 15:12) 또한 세바의 반란을 지지하였기 (삼하20:1-2) 때문입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다윗 왕의 실수함을 그대로 방임하셨던 것입니다(박윤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칠만 명이나 되었습니다(삼하24:15).

한국에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나 된다는 말(한국 인구의 4분의 1), 과연 믿을 만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웬지 많이 부풀려진 교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읽은 기독교 신문 기사가 생각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 50개중 약 24개 교회인가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대형교회 숫자와 교인 숫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라고 외치면서 교인 숫자를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에 더하시는 것(add)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을 곱하는 것인지(multiply)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 현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여 이 교인 숫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게 만드는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에게 진노하시사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노하고 계시며 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반역(betray)하며 반란(rebel)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며(찬송가 412장) 또한 우리가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주님께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자책(conscience-stricken: 양심에 찢린바 되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작게 여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련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땅의 칠년 기근이나 그의 대적에게 쫓겨 석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에 삼일 동안 온역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13절). 그 결과 다윗은 그 130만(9절) (참고: 역대상 21장 5절에서는 157만이라고 적혀 있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7만 명을 잃습니다(15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상 우리가 교인을 많이 잃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분들이 떠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교인 숫자에 많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의

마음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은 언제 품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영혼”이 아닌 “많은 영혼”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고, 크고, 넓고 높게 ... 자꾸만 우리 마음의 욕심의 영역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값없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랄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우리는 다윗처럼 결코 값을 치루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준비되지도 않은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대상21:24)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상당한 값(the full price)을 치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시는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25절).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이상 교인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욕심”대로 목회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내리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우리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리 사단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쇼(show)나 회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entertainment)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 되지 않은 마음으로 전파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목회자에게 진실 된 성품을 찾아 해매는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가려운 귀를(딤후4:3) 즐겁게 해주는 바르지 못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사욕을 좇을 목사님들을 많이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참고: 딤후4:3).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선포한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씨름(마치 야곱이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하는 진실 된 삶을 추구하는 목회자를 스승으로 두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자신의 미련한 죄를

진실 되게 자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양 무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의 대가(cost of worship)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르고자 결단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기도 및 행동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역대상 21장 8, 17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 총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8, 17절에 나오는 다윗 왕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건만(17:7)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을 때(1절) 다윗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므로(2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8, 17절). 제 생각엔 다윗이 그리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하인 요압을 통하여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3절)라고 책망하셨지만 다윗은 그 책망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압을 재촉하여(4절) 결국에는 마땅치 않은 일인(6절)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효를 계수하게 했습니다(5절).

저는 이 말씀을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겸손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유혹이란 우리 목사님들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 마땅치 않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치 않은 일들 중 하나는 바로 교인 숫자 세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 숫자를 계수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요압과 같은 부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들에게 책망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인 숫자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은혜보다 공로의식으로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망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7절). 그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8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회개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먼저 비슷한 점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자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8절),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17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이 미련하게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8절). 그러면 그 두 회개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은 8절에 없는 내용이 17절에 추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추가기도 내용은 바로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 마옵소서” 입니다(17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추가로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여기사(7절)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10-12절) 다윗은 “여호와와 칼 곧 전염병이 사할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을 선택하므로(12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14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불쌍한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은 살려 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할 때 예수님과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생각났습니다(눅23:34).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우리 교회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간구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다윗은 자기의 명령대로 계수함을 받아 여호와와 칼인 점염 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대상21:17) 아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기도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회개의 합당한 행동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범한 큰 죄의 결과를 경히 받아들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을 때(11-12절) 심히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13절) 여호와와 칼 곧 전염병(12절)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14절).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18절). 제단을 쌓되 다윗은 상당한 값(22, 24절)인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25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26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26-27절).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씀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행13:22). 그리고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하나님께 범했는데(삼하11장)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행13:22)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할 때 저는 어쩌면 그 이유는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기에 그러한 회개기도 및 회개의 행동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행13:22).

신부된 교회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한 남편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드러져야 할

"정결한 처녀"가 돼야 합니다(고후 11:2).

정결한 처녀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3절).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3절).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4절).

지금 우리의 귀는 ...

지금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갈1:6, 7, 8, 9).

그 다른 복음은 '섞인 복음'입니다.

그 섞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입니다(Jesus Christ + Alpha).

그리고 그 알파는 바로 "재물"입니다(마6:24; 눅16:13).

지금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간지러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욕(욕심)을 따라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많이 뒀습니다(딤후4:3).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물질의 축복 설교를 하시므로

목사 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가 아닙니다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지금 우리의 귀는 사탄의 소리에 너무나 노출돼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 간교한 뱀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창3:1)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의문의 질문을 자꾸만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핍돼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의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복음 듣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시편 62편 8절).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이번 2016년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 때 받은 은혜가 총만한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엿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은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이 우울해지려다가 다시금 관촬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을 읽다가 3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 다윗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일제히 연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현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는 자들로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즉,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되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보호막을 흔들어 놓고 넘어트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사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잠4:23)의 보호막과 같은 “담”과 “울타리”를 흔들어 놓고 심지어 넘어트리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며 우울케 하며 심지어 절망케까지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2가지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현대인의 성경)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1)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10절, 현대인의 성경)과 (2)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1, 2, 5, 6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특히 물질의 유혹으로 우리를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유혹합니다. 유혹하되 사탄은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까지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8절). 의지하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2, 6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42편 5, 11절과 43편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제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특히 제가 낙심되고 제 속에서 불안해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제임스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제임스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제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성케 하여주시고 일으켜 주시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62:5)고 제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1, 5절).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2,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사30:15).

마지막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셀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나눴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고충을 끼어 앉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하는데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문화가 형성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8절). 그가 그리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3-4절) 자기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해냈었기 때문입니다(7절). 그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11절)과 (2)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12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며(사30:15)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시63:3).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들입니다(62:3, 현대인의 성경).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3절). 그들은 거짓을 즐겨 하는 자들로서 입과 속이 다른(4절) 속임수로(9절)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습니다(4절).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신뢰)해야 합니다(8절). 우리는 잠잠히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1, 5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8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11-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2, 6절).

죄가 우리 문에 엮드려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세기 3장 2-3절; 4장 7절).

제가 즐겨본 중국 무협 영화중에 영화배우 주윤발이 출연한 “와호장룡”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영문 제목은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입니다. 여기서 “Crouching Tiger”이란 말은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에 먹잇감을 노려보면서 잡아먹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처럼 지금 사단은 우리 마음 문에 엮드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즉,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당신 문에 웅크리고(crouching)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4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5절). 그것을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고 말씀하신 것입니다(7절). 죄가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가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8절). 결국 가인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의 대적 마귀(벧전5:8)에게 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결국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웅크리고 있었던 사자 같은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밥이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3:3)를 먹되 먼저 여자가 먹고 그녀가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12절). 흥미로운 점은 그 열매를 먹는 과정 속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1절)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그의 여자를 유혹했다는 사실과 그 여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3절). 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그의 여자를 유혹하였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명령)을 직접 받았지만(11절) 그의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그 여자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2:17)는 명령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3:1)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2-3절). 즉, 그녀는 뱀이 유혹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던 것입니다(3절). 그러나 뱀이 다시금 그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유혹하였을 때(4-5절) 그녀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하지 않(못하)고 “그 나무”(선악과)를 보았습니다(6절). 그녀는 이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사탄이 유혹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마4:4, 7, 10)] 싸워 이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악과를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욱신의 정욕(요일2:16) [“먹음직도 하고”(창3:6)]과 안목의 정욕(요일2:16) [“보암직도 하고”(창3:6)]과 이생의 자랑(요일2:16)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에 빠졌습니다. 즉, 그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6절). 그리고 그녀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그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6절).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자로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선악과 열매를 주었을 때 거절하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으로 책망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여자는 뱀이 유혹했을 때 한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아내가 주는 열매를 받아 자기도 먹은 것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녀에게 이끌려 함께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참으로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뱀은 여자에게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9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므로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10절). 그렇게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었을 때(8절)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범한 그 여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11절)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12절).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열매를 줘서 자기가 먹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결국 아담과 그의 아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므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5:12).

지금 사탄은 우리 문에 앞드려 있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 문에 앞드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지금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죄와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벧전 5:8-9).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창세기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

신년 초하루 온 가족이 형네 집에서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세대 분들과 저희 세대들과 저희 자녀들 세대, 이렇게 삼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한국어와 영어로 찬양을 드린 후 제 사촌 동생 목사님이 먼저 영어로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제 아버님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설교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020년 1월 1일 저희 온 가족에게 들려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두 분 목사님이 두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분 목사님을 사용하시사 두 다른 성경 본문과 두 설교를 통해 우리 전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 가인(1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5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5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4-5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욘4:4), “네가 이 박녕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9절). 왜 요나는 이렇게 두 번이나 성낸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요나가 성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3:10).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뜻 (‘내 뜻’)을 하나님에게까지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한대로 우리를 우리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게까지 성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네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현대인의 성경)]라고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예,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즉, 우리는 우리가 보기(생각하기)엔 하나님께 성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낼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성낼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기에(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스웨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4:5).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인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자기가 무엇이라고 뜻을 돌이키지 않은 것일까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우리 뜻을 하나님에게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21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그 원인이 우리가 겿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대인의 성경) “...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26:39). 즉, 우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까지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간구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3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가(욘4:6) 하나님께서 그 박녕쿨을 시들어 버리게 하셨을 때(7절) 그 시들어 버린 박녕쿨로 말미암아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내었던 것처럼(9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을 때에는 크게 기뻐하다가도 다시금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라고 말씀하신 후(창4:6)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7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3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예배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고후5:17)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받쳐야 합니다. 저는 그 교훈을 이번 주 화요일 아내와 함께 본 영화 “A Hidden Life”에서 또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기 신념을 위해 나치 독일에 맞섰던 오스트리아의 군인 프란츠 예거슈테터는 독일 나치군 들에게 사형을 당하기에 앞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세요). 영화 주인공 프란츠 예거슈테터에게 있어서 옳은 일이란 비록 가톨릭 주교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고 말했지만 프란츠 예거슈테터는 자기 신념 상 악한 히틀러 지도자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것(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후 아내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영화에 대한 대화 속에서 두 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 장인 어르신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장인 어르신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어떠한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영화를 본 후 그 영화의 주인공이 결국에는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 옳은 일을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가 가인의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저는 이 말씀을 영어성경으로 읽으면 “crouching”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오래 전에 보았던 주윤발 영화 “와호장룡”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이 “Crouching Tiger”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crouching’이란 단어의 한국어 의미는 “웅크림”입니다(네이버 사전).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고 그 먹잇감 앞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 문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삼켜서’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에서 지금 우리 마음 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계3:20) 사탄도 마치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 문에 엎드려 우리의 옛 사람을 자극하고 주장케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1절) 여자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1절). 그 때

하와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2-3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창세기 2장 16-17절 말씀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인 아담에게만 명령을 하셨는데 그의 아내인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3:3)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2:16-17)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3:2-3)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른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2:17)고 명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3:3)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뱀에게 말했습니다. 즉,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반드시(surely)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2:17)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3:3)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surely) 죽지 아니하리라”(3:4)고 말한 것을 보면 하와보다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2:17)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교한 사탄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참고: 계시록 22:18) 가감하며(신4:2)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창4:7).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큰 문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6-7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8절).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죄가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리를 어제 신년 초하루에 온 가족 예배 때 아버님 목사님과 사촌 동생 목사님이 선포할 말씀 내용 중심으로 한 3 가지를 생각하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5:2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롬13:14).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란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합니다(골3:5).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야 합니다(고후5:16).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롬8:9,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고후5:15).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죄와 사탄과 죽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되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싸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수1: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9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데 헌신했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비록 우리가 수 없이 많은 때에 그 헌신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7절).

셋째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하므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는 웅크린 사자처럼 우리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죄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습니다(계시록 3:20).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요10:3-5).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간교한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창3:1-5). 우리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날마다 양심이 건강해져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하여 옳은 일을 하므로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새해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 초하루에 전 가족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통해 여호수아 1장 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1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두 분 목사님이 두 다른 성경 본문으로 두 설교를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므로(고후5:14)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의 감이 무딜 때

“곧 그들이 껀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사무엘상 13장 21절).

저에게 있어서 스마트 폰(smart phone)는 유익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읽고 묵상하는 글이나 말씀들의 내용들을 곧장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을 열어 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네이버 블로그, 페이스 북(개인, 교회, 말씀묵상 나눔 공간 및 목강전사, 연애/결혼/가정, 대학 및 신학교), 카카오톡, 카카오톡 스토리, 교회 웹사이트, 이 메일]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는 글들 중에는 제가 그 때 그 때 읽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 중 도전받는 글들 있습니다. 저는 그 그들을 인용해서 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 여기저기에 올리므로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책을 읽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제 깨달음을 글로 적어서 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어쩔 때는 밤에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는 그 모든 깨달음을 제 개인 웹사이트 여기저기에 올립니다. 이러한 습관이 저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밤에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적는 습관과 더불어 저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새벽기도회 후 지금처럼 은혜 주신 말씀을 목양실에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회 때 전파한 말씀이지만, 많은 때에 주시는 은혜는 이미 묵상하고 설교한 말씀이지만 설교하다가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고자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에 이렇게 새벽기도회 후 조용한 아침 시간에 홀로 목양실 의자에 앉아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더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나오는 “무딜 때에”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 묵상할 때 저는 “성령의 감 곧 하나님의 말씀”(엡6:17)이 “무딜

때에”(삼상13:21) 나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의 어젯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딜었을 때에 저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에 패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책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러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고 하여 성경 말씀과 기도도 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성경책을 읽다가 사무엘상 12장 21절과 25절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스마트 폰으로 제가 관리하는 하는 웹사이트 여기저기에 이런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인가? 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망하는데 ... ㅠㅠ”(2016. 3. 28.). 그랬더니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지체가 이러한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러게요.. 쉽지 않네요.. 놀을 수가 없네요..ㅠㅠ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ㅠㅠ.” 그래서 저는 그 지체의 댓글에 이렇게 비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요 ㅠㅠ 주님께,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ㅠㅠ.” 성령의 검이 무딜 때에 저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것을 엿봅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혼동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이 무딜 때에 저는 제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보다 제 주위 환경에 민감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사탄이 이런 저런 유혹으로 공격해 오면 언행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제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싸워 이길 능력이 상실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어젯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21절에서 “무딜 때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괭이”(20절)나 “쇠스랑이나 ...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것들을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가지고 갔었다(20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밖에 없었습니다(22절).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괭이나 쇠스랑이나 쇠채찍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날카롭지 못하고 무딘 상태에서 전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다만 무던 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군인 숫자가 3,000명에서[사울에게는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2절) 사울에게는 약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5절). 군인들이 그리 줄어든 이유는 사울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8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8절, 현대인의 성경)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이 무서워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왜 그들은 무서워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과 싸우려고 온 적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삼만 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그러나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7절). 그래서 “적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사울과 함께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어졌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거기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로 오지 않고 남아 있던 사람들마저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8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보고(11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12절). 그러나 이것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었습니다(13절). 즉,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13절).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13, 14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던지 갖추고 있다 해도 그 검이 무디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 그 힘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서워하여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잠3:5) 두려움 속에서 그 힘든 현실을 피하여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러한 기피증과 도피증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삼상14:6)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 치우쳐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만하여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패하고 넘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갈5:16, 17).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19-21절).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만하여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여 이러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mind)를 부지런히 날카롭게 하여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12, 21절).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11절). 즉,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6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십 명에서(5절) “생육이 종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므로 말미암아(7절) 애굽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보다 많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9절) 지혜롭게 하자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과 합하여 자기들과 싸우고 애굽 땅에서 떠나 갈까봐 (10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습니다(11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11절).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던 것입니다(12절).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13절)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14절).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심브라와 부아라하는 자에게(15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두라고 명하였습니다(16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아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20절)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21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습니다(22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은 애굽 왕 바로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번성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학대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문맥에서 두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비록 사탄은 우리를 학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며 성장 및 부흥케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실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말씀 말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단련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므로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련된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세우시며 또한 성장,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록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 죄를 범하라고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살인)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의 역사에 순종하므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은 형제를 미워하므로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이웃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게도 은혜를 풍족히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벤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사사기 1장 1-2절; 20장 18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름은 “승리장로교회”(Victory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제 아버님을 도구로 사용하시사 1980년 7월 첫째 주일에 승리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왜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많고 많은 교회 이름 중에 왜 교회의 이름을 “승리장로교회”라고 지셨을까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께서 승리장로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여러 번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사춘기 때 방황을 하면서 제 자신의 죄악된 본능대로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면서 사탄에게 패배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수 없이 보아오면서 제 자신으로 인해 수 없는 낙망과 심지어 절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 의미의 중요성과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참석하여 변화 받고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어느 한 교수님을 통해 “교회론”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란 ‘전투적인 교회요 또한 승리를 거둔 교회’(Militant church vs. Triumphant Church)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를 거둔 교회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르침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제가 12살 때부터 아버님이 개척하신 승리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제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며 늘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개척 약 24년 후에 아버님은 은퇴하시면서 직접 선교를 시작하셨고 제가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승리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양로원, 양로병원에 계셨을 때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및 심지어 호스피스에 계셨을 때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든 마음은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함을 기도하며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하며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적으로도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듯한데 제 마음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성경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적어도 제 머리로는 제가 제 자신과 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제 마음으로는 이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계속해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자신의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전쟁에 패하고 또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고 낙망을 수 없이 되풀이 하면서 자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허덕이곤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50여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셨으면 그리도 새벽기도회를 싫어하였던 저로 하여금 새벽기도회

시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말씀 묵상과 기도에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을 읽다가 18절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벧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사기 1장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사사기 1장을 펴더니 1절과 2절에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먼저 저는 이 두 군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군대의 성경 구절을 보면 비슷한 점은 둘 다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여쭙었다는 것입니다(1:1, 20:18).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변의 말씀이 같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1:2), “유다가 올라갈지니라”(20:18). 그런데 다른 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고자 한 전쟁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고자 했던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었던 반면에 사사기 20장에서 그들이 싸우고자 했던 전쟁의 대상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반면에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 전쟁에서는 두 번이나 패합니다(20:18-25). 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두 번이나 패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에 “칼을 빼는 보병이 사십만 명”(2절, 참고: 1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칠백 명”(15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400,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26,700명의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한 것일까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군인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군인 숫자가 매우 작은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한 것일까요? 분명히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18절), “올라가서 치라”(23절)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간 이스라엘 자손이 왜 두 번 다 전쟁에서 진 것일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숫자가 22,000명이었고(21절)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에는 18,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습니다(25절). 우리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의 두 번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가 40,000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000명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군인 숫자인 400,000명(2, 17절) 중에 십분의 일(1/10)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군인 숫자에서 10%가 죽임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일 텐데 왜 10%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만 명 군인들 중에 두 전쟁을 치루면서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26절). 처음 두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오랑캐 적군이 성읍 안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죽이려고 성읍을 공격했는데 패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들 진영으로 와서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 날 다시 공격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전쟁에 패한 후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춘 것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378,000명의 군인으로(400,000명 - 22,000명 - 378,000명) 충분히 26,700명의 베냐민 자손과 싸워 승리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그 결과는 또 다시 18,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25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울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26절). 그 때에는 처음 두 전쟁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27절).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다시금 여쭙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28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8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2절과 사사기 20장 18절의 또 다른 점입니다. 그 다른 점이란 사사기 1장 1-2절에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2절)고 말씀하신 반면에 사사기 20장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18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웠는데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라가서 치라”(23절)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25절). 왜 이리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려고 싸웠는데 왜 두 번이나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성경 사사기 1장 1-2절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의 두 번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1:2).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의 두 번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냐민 자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또는 주겠노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비교: 1:2; 20:18, 23).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혹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칠 줄 아시고(21:6)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칠까봐(6절) 그들로 하여금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과 세 번째 전쟁해서 승리했습니다(20:26-48). 그런데 그들은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하셨으므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습니다(21:15).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 자손과의 두 번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는 동족끼리의 싸움 속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한 그 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다른 열한 지파가 몹시 마음 아파할까봐(21:6, 15, 현대인의 성경)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게 하신 이유가 동족간의 전쟁을 원치 않으셔서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전쟁의 원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 동족간의 전쟁은 첩을 맞이한 어떤 레위 사람(19:1)이 행음하고 자기를 떠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는 첩(2절)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자(3절)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30절).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과 함께 기브아에 들어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의 첩을 밤새도록 겁탈하고 욕보이고 죽입니다(10-28절).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에 도착하여 자기 첩의 시체를 열 두 토막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게 각각 한 토막씩 보냈습니다(29절).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미스바에 모여(20:1)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20장). 이 동족간의 전쟁의 원인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부터가 율법을 범한 것이고 그 첩이 행음하고 떠났을 때 잊지 못하여 다시 데려오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 레위인은 또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보냄으로써 복수하고자 했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동기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장태석).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과의 두 번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 자손과의 두 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그들의 세 번째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전에 두 번 전쟁에 앞서 행한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란 이스라엘 자손은 세 번째 전쟁에 앞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26절).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있는 적군들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과 모래알처럼 많은 그들의 낙타를 보고(7:12, 현대인의 성경)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10-11절)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군 진영의 두 사람의 대화(꿈 이야기와 그 꿈의 해몽)를 듣게 하셨습니다(15절). 그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15절). 그리고 기드온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15절) 적군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16-8: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경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요4:23). 결국 경배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 찾은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사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삿6:14, 16, 36; 7:7, 14).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20:26)[그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벧엘)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27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라고 여쭙었는데[비교: 첫 번째 여쭙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18절)였고 두 번째 여쭙은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23절)였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비교: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18절)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올라가서 치라”(23절)였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고 3일째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29-30절).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성에서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31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전과 같이 벳엘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군을 치기 시작하여 30명 정도 죽이고 이스라엘군이 전과 같이 자기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우리가 도망하는 척하면서 저들을 성에서 큰 길로 꺾어내자’ 하였”던 것입니다(31-32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다말까지 후퇴하여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반격 태세를 취했으며 기브아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은 거기서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33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전 이스라엘군 중에서 특별히 뽑힌 10,000명의 정예병이 기브아를 정면으로 공격하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재난이 닥친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34절,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군 앞에서 베냐민 사람을 패하게 하시므로 그날 이스라엘군은 칼을 쓰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쳐 죽였”습니다(35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의 세 번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했습니다(36-48절).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28절)는 말씀을 받고 올라가 베냐민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이 성 사람들과의 전쟁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두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전쟁 다 이스라엘 자손을 “매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약 5,000명을 매복시켰고(수8:12) 이스라엘 군은 기브아 주변에 일부 병력을 매복시켰습니다(삿20:29,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두 전쟁 다 ‘유인 작전’을 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두 전쟁 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수7:1) 아이 성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5절).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의 두 번 전쟁에서 패하여 40,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삿20:21, 25). 그리고 두 전쟁 다 적군이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이 왕은 이스라엘이 매복을 시킨 줄도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 나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한 척하면서 광야 길로 도망쳤으므로 아이 성 안에 모든 아이군이 이스라엘 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이스라엘 군을 추격하느라 아이 성에서 멀리 떠났습니다(수 7:14-16, 현대인의 성경). 아무래도 아이 왕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군과 처음 전쟁에서 승리했기에[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패배케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왕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군을 물리쳐서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을 죽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임(5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웠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성에서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삿20:31). 베냐민 사람들은 “전과 같이 벵엘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군을 치기 시작하여 30명 정도 죽이고 이스라엘군이 전과 같이 자기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우리가 도망하는 척하면서 저들을 성에서 큰 길로 꺾어내자'”한 것입니다(31-32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 가서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36절).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1:31, 현대인의 성경).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삿1:1-8). 또한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냐민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20:26-48).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하셨고(1:2)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 두 번 싸웠다가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고(20:28)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29-4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시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출 33: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므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도 승리케 하셨습니다(고전 15:55).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57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끈기 있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MacArthur).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되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접한 힘든 상황은 지속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 될 때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혹하는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5:6).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박윤선, 뵤전4:7).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

지속적으로 현혹하는 지름길(deceptive shortcut)을 제안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므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2.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사단이 보여주는 지름길을 선택하여 빨리 얻든지(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임).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재)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Iain M. Duguid의 "LIVING IN THE GRIP OF RELENTLESS GRACE"을 읽으면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시편 55편 말씀]

세상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점진적으로 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슬픔, 고통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왜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 중에는 ‘과거의 짐 보따리’도 있고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상처와 아픔, 괴로움과 근심,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베드로전서 5장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17-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향한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마6:34).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다윗의 짐은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서 “근심”이란 히브리 단어는 “수풀”의 의미하기도 합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근심이 “수풀이나 가시덤불처럼 복잡하고 착란한 심사 때문에 생기는 고로, 이 글자가 사용된 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다윗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심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심은 건강에 지장을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행복의 척도는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심 없이 사는 가난한 삶이 근심에 파묻혀 사는 부자의 삶보다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도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인터넷).

(2) 다윗의 짐은 ‘심한 마음고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길 원했습니다(6절). 한 마디로, 다윗은 짐이 너무 무거워 현재 상황을 피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또한 죄악과 잔해함,

악독과 압박, 궤사를 보므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10-11절). 이 외에도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이유는 친구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13절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다니면서 재미롭게 의논하며 교제하였던(14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한 친구는 자기와 화목한 자인 다윗을 치고 그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20절). 그 친한 친구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었습니다(21절).

둘째로, 어떻게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가?

다윗은 그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 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 다윗은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의 근심이나 자기가 처한 악하고 죄악 된 상황으로 인하여 심히 아파하였던 마음을 기도로 다 맡겨 버렸습니다. 특히 그는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아픈 마음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 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주님께 자기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맡겨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16-17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근심과 심한 고생, 아픔을 다 주님께 간구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무거운 짐, 근심과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23절 하반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지막 셋째로,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 가지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현재의 위협과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면 자기를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55:22).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5편 18절을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사(19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23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시편 21편 7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 이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호프먼 목사를 찾아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심에 싸인 저는 무엇을 해야죠?”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호프먼 목사는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성도는 밝은 얼굴을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성도가 나간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호프먼 목사는 펜을 들어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363장이 탄생한 것입니다(인터넷).

저는 이 찬송가를 언젠가 제 아버님이 선교지에서 힘차게 부르시는 찬양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아버님은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닥친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셨습니다. 그 날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저 또한 무사히 한국으로 나아와 나중에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심한 마음고생으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로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버리십시오.

누가 내 영혼을 지키시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시편 121편 7절).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시편 121편에서 시편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나의 책임은 없는가?"입니다. 어제 있었던 차에 휘발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 안에 휘발유가 거의 없으면서 Gas station을 가지 않고 목적지인 교회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말이 되는 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차는 교회 가기 전에 전처럼 (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회차가 휘발유가 없어서 길가에서 섰었음) 길가에 멈추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우리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7절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적 연료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여,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과연 나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소유(시편 119:56)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므로 죄를 범치 아니해야 하는 것(시편 119:11)이 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의 책임은 영적 연료를 내 영적 연료 탱크에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에 사인이 들어와 휘발유가 거의 떨어진 것을 아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에 영적 연료가 떨어진 것을 깨달아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말미암아(호세아 2:14) 영적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악영의 세력에 무방비 상태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백양목처럼 견고히 서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비춰져 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영혼이 시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운전하고 몰아야 하는 쫓기는 크리스천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수 없이 들으면서도 영적 연료가 공급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총만함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므로 우리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길 간구하면서 내 자신이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항상 충분히 저장해 놓는 지혜로운 신앙 경주가가 되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팔지 마세요!

**“...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상 21장 20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 생각은 바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사탄의 가게에서는 내 마음이 제일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비뚤어트려서 거짓된 마음으로 파는 사탄의 가게에서는 탐심과 욕심 등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질시켜 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엔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람 왕 벤하닷과 그 군대와 싸워 두 번이나 승리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아합 왕은 잘 못된 것인가요? 언제부터 그는 스스로 팔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인가요? 열왕기상 20장34절을 보면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과 그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34, 42절). 그 이유는 벤하닷과 약조하여 놓아주는 대신 벤하닷의 부친이 아합 왕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다 아합 왕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34절). 결국 아합 왕은 자기의 탐심 또는 욕심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합 왕의 탐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의 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왕상21:1-2). 여기서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1절)란 말씀은 다윗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다윗 또한 왕궁에서 거닐다가 지금 말로 하면 옆집에서 묵욕하고 있었던 밋세바를 보고 성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아합 왕도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낸 것입니다. 역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리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이유는 그 포도원으로 “나물 밭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2절). 벤하닷에게 “모든 성읍”(20:34)을 돌려받은 아합 왕은 이젠 한 개인의 포도원까지 탐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탐심 또는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탐심 또는 욕심 … 그러나 나봇은 그저 왕이기에 아합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21:3). 그러므로 아합 왕은 이젠 탐심 속에서 “근심”(4절)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 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4절, 20:43). 그 때에 이세벨 여왕이 등장합니다(6절). 결국 이세벨은 그의 남편인 아합 왕을 “총동”(25절)하여서 나봇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8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 하였다’라고 거짓 증거케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자유인 회당원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짓 증거케 하므로 스테반을 법정에 세워서 결국 돌로 쳐 죽이게 한 사건과 유사한 것입니다. 역시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거짓 증거케 하여 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5절)라고 물었을 때 아합 왕의 대답은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6절)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아합 왕은 탐심에 마음의 귀가 멀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20장에서는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듣고 두 번이나 산과 평지에서 싸워 승리하였던 아합 왕인데 이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분명히 나봇이 말하였건만(3절) 아합 왕은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6절). 더 이상 탐심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한 사람의 변질된 모습입니까? 아합은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16절) 그 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19절)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땅을 빼앗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탐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팔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답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항상 열어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언 24장 15-16절).

이번 주 뉴스를 통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인 미국인 의료 선교사 켄트 브랜틀리(33살)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앰불런스를 타고 도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앰볼런스에서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브랜틀리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지난 달 7월 31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던 그가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작별 전화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그가 2013년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나기 석 달 전 “힘든 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되새길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해 7월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한 말이 음성 파일로 페이스북 북에 최근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어린 아들과 딸, 아내(사진)와 함께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난다’며 ‘2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20년 동안 폭력과 파괴에 시달린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사역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해 브랜틀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인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교를 떠나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던 브랜틀리 의사가 이렇게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병원에 앰볼런스를 타고 도착하여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다시 일어나 그가 소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충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엿보며 틈만 보이면 우리를 넘어트리고 우리의 집을 헐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잠24:15).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마16:2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23절). 사도 베드로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을 때(21절)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말했습니다(22절).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건만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로 우리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감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데서 돌이켜 세상의 넓은 길을 걷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뜻을 생각케 하여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로 감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와 우리 식구들이 감염이 되면 우리는 소명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육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다 우리 가족 식구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엿보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만 근거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되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일곱 번, 아니 무수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므로 말미암아 실망도 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오뚝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뚝이를 치며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금방 일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악인들이 우리를 쳐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뚝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오뚝이는 아래 부분이 가장 무거우므로 우연히 윗부분이 아래로 기울어지더라도 중력의 영향 때문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결국 언제나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위치해야만 안전하고, 외부의 영향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서게 해주는 “무게중심”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 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되 수 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금 소성시키시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서현교회 이종미 자매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화상으로 비록 육신의 몸은 "미라처럼" 붕대로 온 몸이 감겨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워 승리한 종미 자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25절]

여러분, 여러분도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청소년이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ㄹㅈ”과 “ㅈㄹ”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보았는데 “ㄹㅈ”는 “미친!”이란 뜻, 즉 그 청소년은 자기 엄마 아빠가 미쳤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고 “ㅈㄹ”은 “지랄!”, 즉 엄마 아빠가 지랄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대(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로서 “정말 세상 말세는 말세야!”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종종 “정말 세상 말세는 말에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말세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 말할 때 “말세”란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합니다(인터넷).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리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세”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한 1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① 자기를 사랑한다. ② 돈을 사랑한다. ③ 자랑한다. ④ 교만하다. ⑤ 비방한다. ⑥ 부모를 거역한다. ⑦ 감사하지 아니한다. ⑧ 거룩하지 아니하다. ⑨ 무정하다. ⑩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⑪ 모함한다. ⑫ 절제하지 못한다. ⑬ 사납다. ⑭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⑮ 배신한다. ⑯ 조급하다. ⑰ 자만한다. ⑱ 쾌락을 사랑한다. ⑲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인터넷).

그리고 저는 이 19가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생각할 때 주로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3가지를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다시금 묵상해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 19가지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원통함도 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지 않나요? 그 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운 때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한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1)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됩니다, (2) 유대인의 총만한 수가 교회 내에 들어와 채워집니다, (3) 복음을 믿던 자들과 교회들이 배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5) 세상 곳곳에 지진과 전쟁등과 같은 것이 발생하며 대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나 자기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란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주후 1세기에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그 때가 이미 “마지막 때”였다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마지막 때 또는 말세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지 좀 혼동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말세 또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2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인 옛 언약 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신약인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므로 끝납니다(종결). 즉,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므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자기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다[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이미 들은 것처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1)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 시대인 1세기 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때가 마지막 때요 그 때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이 쓰여 졌던 당시 주후 1세기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2)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은 단수(singular)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한번은 복수(plural)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처음에 단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a particular person)을 염두해 두고 말한 반면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들”(many individuals)이라고 말한 것입니다(MacArthur).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사람들이란 예를 들어 ‘거짓 선생들’(false teachers)과 ‘미혹하는 자들’(deceivers)을 말합니다(MacArthur).

(3)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8-25절에서 한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a)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적그리스도들은 예전에는 사도 요한이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고 믿는 자들에게서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 이기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렘14:14; 28:15). 또 생각난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배운 것은 사탄은 원래 천사였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지어 타락했고,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께 내어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배웠는데 그 교리에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금성)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루시퍼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b)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러한 자, 즉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 약 주후 1세기 당시에 이미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은

말세(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과 4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한 후 요한이서 2장 7절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미혹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석절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란 거짓말 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성육신)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23절).

결론

실제로 존재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루려는 모든 목표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것입니다(챌버스). 그러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한 교만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위어스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우리 정체성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여 부부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의 결과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으며, 성적 유혹으로 간음과 불륜의 죄도 범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정은 영적 전쟁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또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지금 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되 목사님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한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져야 할 정결한 처녀로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패하게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요,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은 가능한 한 거짓을 많이 퍼뜨려 진리를 부인하고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맥아더). 그 결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은 비복음적이며 비진리인 거짓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란 시대의 흐름 아래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동하고 있으며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므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이미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도 승리케 하셨습니다(고전 15:55).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므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